

# 한국전통 아동교육이 발달지체아동 교육에 주는 함의 - 『士小節』을 중심으로

유재연(柳 在 連)<sup>1)</sup>

## <요 약>

최근 발달지체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환경, 특히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된 생활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교과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의 특성상 이들에게 충분한 생활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으며, 비록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연령에 적합한 생활중심의 개별화교육계획(IEP)을 실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에 모든 문제를 맡기기 이전에 발달지체 아동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와 가정 이 연계된 생활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가정에서 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에게 교육을 시키고자 할지라도, 전통사회가 붕괴된 이후 가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은 그다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록 직접적으로 장애아동의 교육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아동의 교육목적이 일반교육과 다르지 않은 현재의 특수교육 이념에 따르면, 이덕무의 『士小節』은 가정교육의 중요성, 생활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사로서의 부모 역할 등에 관하여 현대 특수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학문 영역간의 협력을 통한 장애아동 교육의 지원이라는 간학문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의 수단을 시간적으로 과거까지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검색어: 한국전통 아동교육, 발달지체, 전환교육, 사소절(士小節)

## I. 서론

발달지체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환경, 특히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된 생활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Patton, 1997). 그러나 학교는 전형적으로 교과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유재연, 2003) 이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자신의 생활연령에 기대되는 신변처리 능력 등이 뒤떨어지는 발달지체의 아동을 위하여 각각의 개별 아동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오정화, 1996). 그러나 가정에서 비록 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에게 교육을 시키고자 할지라도, 전통사회가 붕괴된 이후 가정에서 아동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은 그다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훈육과 관련하여 한국전통사회에서 가장 널리 읽혀온 서적으로는 『小學』 『童蒙先習』 『擊蒙要訣』 『士小節』 『顧菴家訓』 등을 들 수 있다(박상희, 1999). 그러나 이덕무는 『小學』이 시대적으로나 풍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아 이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士小節』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sup>1)</sup> 조선후기 북학과 실학자인 이덕무(1741-1783)가 영조 51년(1775)에 저술한 가정 수신서(修身書)의 일종인 『士小節』의 내용은 남자의 예법(士典) 5권, 부녀자의 예절(婦儀) 2권, 아동의 규범(童規) 1권 등 모두 8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세분화하여 924가지의 작은 사례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士小節』에 대한 저술 동기는 실학과 관련한 그의 사상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덕무의 주장에 의하면 단순히 옛부터 읽혀온 고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시대와 가치의 변화에 따라 달라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편협적인 국수주의(國粹主義)에 의

1)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하여 다른 나라의 풍습과 가치를 배척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개척하고자 하는 실학(實學)의 본질적인 정신<sup>2)</sup>이라고 할 수 있다. 이덕무의 이러한 사상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차이가 나는 외국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 반추(反芻)하게 하는 것이다.

『士小節』의 특징은 이와 같이 사상적으로는 중국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무조건 답습하는 것을 배제하고자 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다양한 상황에 맞도록 매우 자세하게 각각의 상황에 맞는 행동규범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있다. 소절(小節)은 말 그대로 사소한 행동규범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덕무는 이러한 사소한 행동규범을 실천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행할 올바른 도리라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사소한 행동규범의 내용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회성의 향상을 중요한 교육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발달지체아동 교육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전통 가정교육을 위한 대표적인 저술들 가운데서 『士小節』은 가장 구체적으로 한국적 행동규범을 언급한 한국고전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한기연, 1973), 그 체계와 내용면에 있어서도 현대 특수교육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과제분석(task analysis)의 측면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의 목적이 일반교육과 다르지 않음이 강조되는 현재의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구성원리에 의할 때(교육부, 1998), 비록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士小節』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통하여 생활중심의 발달지체아동 교육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과거를 통하여 현대를 새롭게 조명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한 방법이며, 동시에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접근을 통하여 장애아동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현대 특수교육의 방법론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덕무 『士小節』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이를 발달지체 아동의 가정에서 어떠한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士小節』 구성의 특징

『士小節』은 남성의 예법을 주로 다룬 「사전(士典)」, 여성의 예법과 관련한 「부의(婦儀)」, 그리고 아동의 예법을 강조한 「동규(童規)」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편마다 본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머리말에 해당하는 저술의의를 먼저 기록함으로써 전체의 대강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서문과 각 편의 서두에 기록된 찬술의의 39개항목을 제외한 『士小節』의 전체 구성 885개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졌다(손직수, 1994).

<표-1 > 『士小節』의 구성

篇別	章別										計
士典	性行 44	言語 38	服食 57	動止 72	謹慎 49	教習 49	人倫 37	交接 121	御下 22	事物 73	562
婦儀	性行 26	言語 15	服食 42	動止 22		教育 17	人倫 26	祭祀 8		事物 43	199
童規				動止 33		教習 38	敬長 21			事物 32	124
계	70	53	99	127	49	104	84	129	22	148	885

『士小節』의 전체 구성은 해당 대상자에게 기대되는 본질적인 차원이라 할 수 있는 성행(性行)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각각의 세부적인 하위영역의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나머지 잡다한 사항을 다시 묶어서 사물(事物)영역에서 기록함으로써, 실제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士典」편의 전체 대강은 사단(四端), 구용(九容), 오품(五品)을 중심으로 한 예법을 통하여 남자가 해야 할 근본 도리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sup> 타고난 성품과 기질은 바꿀 수가 없지만 날마다 노력하게 되면 아무리 미세한 것이라도 파고 들어갈 수 있고, 단단한 것이라도 부숴 내지 않음이 없다고 설명하고, 옛날 사람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때때로 그 본질이 둔한 사람이 있다고 함으로써(姿性有鈍敏, 不可強也, 雖然.....則亦無微之不入, 無堅之不破, ..... 古人有大就者, 往往是鈍魯人, 不足爲憂也, 「士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덕무의 사상은 교육의 가능성과 결과가 일반교육에 비하여 부족하거나 더디게 나타나는 특수교육에서 오히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婦儀」편 성행(性行)에 따르면 이덕무의 여성관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덕무는 대개 부녀자 중에는 재주와 성품이 슬기롭고 민첩한 사람이 많아서, 쉽게 바른 길로 들어서고 잘 감동한다라고 하였다(蓋婦女才性慧悟者多, 其爲易入而善感, 「婦儀」). 또한 남녀의 역할을 음과 양으로 설명함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인 음(陰)과 남성의 지위인 양(陽)을 뜻하는 건곤(乾坤)이 균등하다고 함으로써(易乾坤, 二儀均, 「婦儀」), 여성의 지위를 단순히 남성의 지위에 복속시켜서 폄훼(貶毀)하지 않고 동등한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더욱이 아내가 교만하고 방자하게 되는 것은 남편이 먼저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함으로써(使妻驕姿, 蓋由於丈夫之不能先正其身, 「婦儀」) 남녀관계의 대등한 상대성(相對性)을 인정하였다.

교육에 있어서 이덕무는 남자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 집을 망치고, 여자를 가르치지 않으면 남의 집을 망치게 한다고 한 점에서(不教男子, 亡吾家, 不教女子 亡人家, 「婦儀」), 남녀 아동교육의 중요성을 동등하게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초기교육에 대한 중요성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여자아이의 상냥하고, 유순하게 잘 좇고, 물 뿌리고 쓸고 부름에 응하여 잘 대답하고, 천을 짜고 옷을 만들고, 떡을 짓을 삶고 익히고 조리하는 재능은 오로지 어머니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남자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도 남자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7, 8살에 이르기까지 나가고 들어오고, 걸어다니고, 말하고, 웃고 행동하고, 옷 입고, 음식 먹고, 조절하고, 화목을 알맞게 삼가고, 덕성을 북돋아 기르는 일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然女子之婉婉聽從, 灑掃應對, 紡織裁縫, 烹飪調劑, 專憑母教,.....男子自初生至于七八歲, 出入行涉, 言笑起居, 衣服飲食, 節慎雍和, 培養德性, 亦資母訓, 然則爲母之職, 不亦重且大乎, 「婦儀」).

이러한 이덕무의 주장에 의하면 아동교육 최초의 책임 있는 교사는 어머니임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교육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을 강조한 것은 「士典」과 「童規」편에서는 교습장(敎習章)으로 설정하였으나, 「婦儀」편에서는 교육장(敎育章)으로 표현하여,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관련한 여성의 자세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이러한 『士小節』의 편재는 단순히 가정의 규범을 지켜야 하는 학습자로서의 여성 역할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자로서의 여성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8세까지 남녀 아동은 주로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기까지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들은 학령전기의 아동에 해당되며, 대부분 본격적인 교과학습(academic learning) 이전에 충분한 자기관리의 능력이 요구된다. 현대 특수교육에 있어서도 아동의 기본 신변활동과 자기

관리의 능력 등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영향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가정교육과 현대특수교육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아동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동규(童規)」 편에서 자세히 설명되었다. 「동규(童規)」의 머리글에서 이덕무는 하늘이 부여한 성품을 간악하게 하지 말고, 부모님이 주신 몸을 어긋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한 번 생각하는 데에도 법칙이 있어야 하고, 한 번 동작하는 데도 격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어려서 준칙이 없으면 자라서 더욱 잘못되기 때문에 아동의 바른 행동거지를 위해서 동규(童規)를 짓는다고 하였다(天賦性, 罔或慝, 親遺身, 罔或忒, 一念慮咸有則, 一動作咸有式, 整爾衣, 節厥食, 童無準, 長益仄, 撰童).

하늘이 부여한 성품을 간악하게 하지 말라는 표현은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맹자의 성선설(性善說)의 관점에서 『士小節』이 쓰여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어려서 준칙이 없으면 장성해서 더욱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은 조기교육과 적기교육(適期教育) 방법의 일관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의 생각과 행동에도 법칙(法則)과 격식(格式)이 있어야 한다는 이덕무의 아동교육 방법론은 아동교육이 단순히 맹목적인 반복활동으로 강요되어서는 안되며, 교육의 내용과 목표 그리고 교육 활동은 논리적(論理的)으로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덕무는 아동의 교육을 동지(動止), 교습(教習), 경장(敬長), 사물(事物)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士小節』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곳은 「交接」이다. 교접은 주로 뜻을 같이 하는 동료에 대하여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同志之人, 若以誠意, 先來托交, 卽須往謝, 門地才性, 雖不如我, 勿生驕心, 而因循不謝也). 「人倫」이 가족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御下」가 아랫사람들을 거느리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된 것 역시 모두 상황을 달리 설정하였지 근본적으로는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士小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현기(1995)에 의하면 정신지체 아동들은 교과학습에서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 유형의 사회적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부적응 현상으로는 또래관계에서 자기 주장의 결여나 위축적인 행동, 또는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아동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아동의 사회적응행동을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올바른 역할에 초점을 맞춘 『士小節』의 내용은 발달장애 아동의 교육을 대인문제 해결 훈련에 초점을 맞춘 현대적 특수교육의 관점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 Ⅲ. 『士小節』 교육내용과 방법의 분석

아동교육을 중심으로 한 「童規」편의 구성 순서인 「動止」「教習」「敬長」「事物」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동지(動止)

동지(動止)란 움직임과 멈춤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동거지(行動舉止)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덕무는 어린이의 기상은 영리하고 뛰어나더라도(穎超) 들떠 날뛰는데 이르지 않아야 하고, 재주가 뛰어나지 못하고 순박하더라도(渾樸) 나약하고 무른데 이르지 않아야 하고, 대번에 재능을 다 나타내서 남아있는 재능이 없게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니, 다만 정성을 다하여 오래도록 발전되도록 하여야 할 것(童孺之象, 穎超不至浮橫, 渾樸不至孱腐, 不可了了無餘蘊, 只可肫肫有長進.)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아동의 교육은 단기적인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動止」에 나타난 이덕무가 관찰한 아동의 문제행동은 주로 아동들이 말을 조급하게 하거나 함부로 하는 것, 주의가 쉽게 흐트러지는 것, 인내심이 적은 것, 새로운 것에 쉽게 현혹되는 것, 복잡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 위험한 놀이를 하는 것, 자세가 바르지 않은 것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주로 정신지체 정의와 관련한 적응행동 영역에서 식사하기, 옷입기, 위생, 몸치장하기와 관련한 자기관리(self-care)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動止」에 나타난 자기 관리와 관련한 예를 들면 옷 입기와 관련한 것으로는 옷은 동정이 접히지 않게 입고, 바지는 끈을 늘어트리지 말라고 하여 바른 옷차림을 강조하고 있다. 콧물을 두 소매로 닦거나, 맨발로 다니거나, 손을 바지 속에 집어넣지 말라고 하여 기본적인 사회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하여 경계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현대사회에서도 일반아동들뿐만 아니라 발달지체아동의 올바른 식사습관을 위한 교육내용으로도 활용가치가 높은 것이다.

이덕무는 「動止」에서 바른 자세의 형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입을 벌리고 있거나,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거나, 허공에다 글씨를 쓰거나, 언제나 기대어 앉거나, 오래 앉는 것을 견디지 못하거나, 무릎을 흔들고 손을 뒤척이거나 입으로 옷끈과 땀을 씹는 행동들은 아동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거나 괴이한 행동이기 때문에 경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광범위성 발달장애(PDD) 아동들의 행동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문제행동(김은경, 1999)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들이다.

## 2. 교습(敎習)

교습(敎習)이란 가르쳐서 익히게 하는 것이다. 「敎習」의 주된 내용은 교수학습에 대한 원리와 방법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습(敎習)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다. 갓난 망아지는 엄격하게 길들여 좋은 기술을 익히게 하지 않으면 장차 좋은 말을 만들지 못하고, 소나무 모종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아름답게 키울 수 없다고 하였다(生馬之駒, 不能調習, 不可以爲良驥, 釋松之苗, 不能培壅, 不可以成美材, 故有子而不能教, 猶棄之也 「童規, 敎習」). 이러한 비유는 조기교육과 적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세 가지 기본 단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순서는 첫째 시와 노래로써 의지를 발달시키고, 둘째 이를 기본으로 하여 예절을 익히도록 하고, 셋째 이를 풍자하여 책을 읽어서 지각을 계발하도록 하는 것이다(其栽培涵養之方, 則宜誘之歌詩, 以發志意, 導之習禮, 以肅威儀, 諷之讀書, 以開知覺 「童規, 敎習」).

시와 노래로써 의지를 발달시키는 것은(以發志意) 아동의 동기를 충분히 북돋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시와 노래로써 동기를 북돋우는 방법이 현대 음악교수법과 동일할 수는 없으나, 이를 학습의 전단계로써 활용하고자 한 것은 주지주의(主知主義)교육으로 알려진 전통사회의 교육 방법에서도 아동의 동기와 준비도를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덕무는 맑고 명랑하게 소리와 음을 고르고 음절과 가락을 조절하여 오래 연습하면 심기가 화평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凡歌詩, 須要整容定氣清郎, 基聲音均, 審基節調, 卬躁而急, 卬湯而囂, 卬

餒而懾, 久則精神宣暢, 心氣和平矣, 「童規, 教習」). 이러한 내용들은 학습의 동기와 정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현대교육방법론과 상통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예절을 익히는 방법으로는 생각을 엄숙히 하고, 몸가짐을 잘 헤아리고 수양을 통하여 실수가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몸가짐을 잘 헤아려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특징이다. 이덕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숫자에 따라 분반하여 서로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 방법은 글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덕무는 글을 가르침에 있어서 아동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르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동의 성품을 헤아려서 200자를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는 100자를 가르쳐 주어서 항상 정신적인 측면에서 여유를 가지게 하여, 아동 스스로가 공부에 대하여 싫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자발적인 의지를 갖추어 학습하는 습관이 들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凡授書, 不在徒多. 但貴精熟, 量基資稟, 能二百字者, 只可授以一百字, 常使精神力量有餘, 則無厭苦之患, 而有自得之美, 「童規, 教習」). 이러한 방법은 아동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통교육이 단순히 엄격한 주지주의(主知主義)에 의한 교사위주의 학습이라는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을 가르칠 때는 절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읽히는 것을 피하고 아동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달리 분량을 정하여 읽힐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칠 때는 절대로 많은 분량을 가르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총명하고 민첩한 아이에게 조금 읽혀 잘 외우게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며, 둔한 아이에게 많이 읽히는 것은 약한 말에 무거운 짐을 실은 것과 같다(授小兒書, 切忌多行, 聰敏者, 小讀善誦, 不是好品, 使鈍者多行, 猶藥馬負重, 「士典」)는 표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동의 인지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개별화 교육방법과 그 목적이 같은 것이다. 글을 읽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덕무 본인의 예를 들어 어릴 때 하루도 공부를 빼놓은 일이 없이 아침에 4, 50줄을 배워 가지고 50번을 읽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섯 차례에 분배하여 한 차례에 열 번씩 읽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완전학습을 위한 반복학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발달지체아동의 교육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습목표를 정하여 규칙적으로 내용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한국 전통교육방법은 현대 특수교육의 방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해서 Greenspan(2000)이 floor time을 주장하고 하루의 전 시간을 통하여 아동과 상호작용 하도록 하는 방법을 권장하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한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아동의 정서에 따라 교육방법을 달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기백이 약한 아이에게 엄하게 하면 겁을 먹게 되며, 기가 센 아이에게 엄격하면 아동이 발광하고 울분하고, 의지가 부족한 아이에게 너그러우면 게을러지고 산만하여지며, 성질이 강한 아이는 횡포하고 제멋대로 놀아난다고 하였다(教小兒, 不可嚴束, 嚴束, 則魄弱者驚恟, 氣盛者狂鬱, 且生嫉怨之心, 不可寬縱, 寬縱, 則志拙者懈怠, 質強者橫放, 且生凌侮之心, 須如御馬使鷹, 鞭條常在手, 而操縱適其宜可也, 「士典, 教習」)

학습과 관련하여 전통학습에서는 체벌의 사용을 불가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덕무는 율곡이 아동들을 가르치는 17가지 조목을 정하고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번을 범하여도 벌을 주고, 가벼운 것은 세 번을 범하면 벌을 주었다는 것을 인용하여(栗谷先生, 教小兒 有十七條, 重則一犯論罰, 輕則三犯論罰, 「童規, 教習」) 아동에게 내려야 하는 체벌에도 원칙을 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수교육에 있어서도 별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냥 스쳐지나갈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가벼운 벌을 주고, 벌의 효과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조용태·김미실 공역, 1997), 전통교육에서 사용한 벌을 주는 방법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교육의 성과와 관련하여 전통교육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부모의 역할이 긍정적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지나친 아동의 사랑에 연유하여 아동의 교육을 망칠 수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이덕무는 부모의 잘못된 역할에 대하여 처음에는 비록 신신부탁을 하여 아동의 감독과 통솔을 염려하나, 만약 아동의 종아리를 때리면 이상한 일로 여기고 부모와 아동이 반발하여 학습을 중단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덕무는 비록 엄격한 스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명한 부형이 없으면 아동은 금수와 같이 될 수 있으니, 이는 스승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라고 하였다(始雖申屬托 而愈恐其督率, 若加楚撻, 則大以爲異事, 而同字始叛去矣, 故雖有嚴師友, 而若無賢父兄, 則不肖子弟, 爲禽爲獸, 無所不至, 此非師友之過也, 適父兄之無識也, 「士典, 教習」).

자신의 경험에 의한 부모의 과잉보호와 관련한 이덕무의 관찰은 특수교육에 있어서 장애아동 부모들의 행동특성의 하나인 과보호(명정옥, 1996)가 아동 교육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경장(敬長)

경장(敬長)은 어른을 공경한다는 의미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부모, 스승,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예의와 아동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마음가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 사랑함으로만 가르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적기(適期)에 적합(適合)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童子必教以厚重恭謹, 然後長能知敬待師友, 雖有才藝, 不敢宣驕於人, 嘗觀薄有才, 而家世富貴者, 必驕於人, 不辨老少, 怨謗橫集, 戮辱及父兄, 蓋驕生於淺, 淺生於昏, 摠由干 幼時不教以厚重恭謹, 自陷於不孝不弟, 可不懼哉 「童規, 敬長」). 이덕무는 이와 관련하여 어린아이의 교만과 무례는 부모들의 잘못에 기인한다고 하였다(故使孺子驕慢無禮者, 父兄之過也, 「童規, 敬長」). 이것은 어른을 공경하는 적절한 사회적인 대인관계 능력의 형성은 부모의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부모의 태도와 관련하여 아버지가 너무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아동은 위축되고, 어머니가 아동을 사랑하여 아동의 버릇없음을 방치하면 아동이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고 보고, 부모와 아동의 관계는 공경과 사랑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故事父母, 敬也愛也, 均焉而已矣 「童規, 敬長」). 경장(敬長)의 전체적인 내용은 스승에 대한 예의, 어른에 대한 예의, 손님에 대한 예의로 구성되어 있다.

### 4. 사물(事物)

사물은 일과 물건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취급해야 하는 아동들의 여러 가지 잡다한 사항들에 대한 당부를 모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덕무는 아동의 교육은 먼저 사물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아동교육의 내용에 육갑(六甲), 구구법(九九法), 세계(世系), 국호(國號), 명수(名數)를 가르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幼時不能詳記六甲·九九·世系·國號, 諸名數, 「童規, 事物」). 육십갑자와 구구법, 그리고 대를 잇는 계통인 세계(世系)는 모두다 암기와 함께 일정한 규칙이 있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명수(名數)는 사물을 나타내는 단위와 수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한 지식이 당시 사회에

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는 사물장(事物章)에서 취급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시의 사회상에서 이러한 사항을 아는 것들은 오늘날의 도구교과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덕무는 아동의 놀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아동들은 책을 읽는 것은 싫어하고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놀이는 가르치지 않아도 부지런히 한다고 하였다. 놀이는 정신을 소모하고, 의지와 기개를 어지럽히고, 공부를 그만두고, 바른 품행과 절도가 잃어지고, 경쟁을 조장하고, 간사함을 기르고, 심지어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죄를 저 형벌을 받게 하는데 까지 이른다고 하여 놀음의 폐단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놀이를 비판함에 있어서 단순히 놀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놀이를 잘하면 칭찬하고, 놀이를 잘하지 못하면 조롱하고 비웃는 문화의 비판에 더 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童孺之習, 舉皆厭讀書, 恥執役, 至於一切嬉技, 不勤而能, 不教而勤 「童規, 事物」).

또한 여기에서 제시한 놀이들은 주로 유아(幼兒)의 놀이가 아니라 아동(兒童)의 놀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고대 유아에 대한 표현은 『예기』 「내측」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가 있다. 유자(孺子)는 출생에서부터 10세까지의 남녀로 볼 수 있으며, 동자(童子)의 경우에는 주로 13세에서 20세 사이를 의미한다(안경식, 1992). 이러한 관점에서 이곳에서 표현된 동(童)은 현대적 의미에서 형식적조작기 이후의 아동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 놀이의 폐단을 지적한 것은 형식적조작기 이후의 아동과 관련한 주된 놀이이며, 구체적조작기 이전의 아동들의 유아 놀이까지를 비교육적 행위로 규정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놀이의 폐단을 든 장기, 바둑, 쌍륙, 골패, 투전, 윷놀이, 돈치기 등과 같은 놀이는 전통놀이에서도 주로 형식적조작기 이후의 아동놀이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놀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단순히 유아놀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대적 의미에서 형식적조작기 이후의 아동놀이에서 지나친 경쟁과 놀음을 조장하는 행위와 관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놀이가 아동의 자발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아동의 자발성에만 의존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동에게 가르치지 않고 방치하면 아동은 나태한 습관과 사악한 기질에 물들기 쉽다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청결과 정리정돈과 관련하여서는 먼지를 소제(掃除)하는 일은 때에 구애받지 말고, 벼루는 5일에 한 번 씻고, 이불과 요 자리는 3일에 한 번 털라고 하였다(掃塵不拘時, 五日一洗硯, 三日一拂衾褥及席, 夫書畫籤抽, 隨亂而整, 署月房室, 朝夕搜跳蟲, 「童規, 事物」). 음식과 관련하여서는 밤참을 많이 먹지 말고, 먹은 뒤에 곧 눕지 말고, 음식을 먹을 때 부스러기를 혀로 핥지 말고, 국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지 말고, 밥을 먹을 때 웃음을 터트리지 말라고 하였으며, 아침밥을 먹을 때는 낮을 씻고 먹으라고 하였다(夜饌勿多食, 食後勿即臥, 凡飲食, 屑不可舌舐 汁不可指搨, 當食物放笑, 朝食不洗面, 命曰齷齪, 「童規, 事物」). 또한 불에다 대고 기침을 하지 말고, 바람을 거슬러 침을 뱉지 말라(勿當火而咳, 勿逆風而唾, 「童規, 事物」)고 한 것과 같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세세한 항목을 관찰하여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평가를 높이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아동교육과 관련하여 이덕무는 가난한 집안의 아동은 말할 것도 없고, 부유한 집안의 아동일지라도 책을 읽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수고로운 일을 경험할 것을 강조하였다(貧賤家兒, 固無論也, 雖富貴家兒, 讀書之餘, 隨其筋力, 時執勞苦之役, 後日功甚大 「童規, 事物」). 수고로운 일이란 독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하여 가치를 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을 익히는 것은 훗날 카다란 보람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事物」의 내용인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은 정신지체 정의와 관련



한 적응행동의 영역 가운데, 가정생활 기술, 자기보호 기술, 건강과 안전에 대한 기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IV. 『士小節』의 발달지체아동 교육함의

##### 1. 조기교육

발달장애아동의 진단은 DSM-IV에 의하면 주로 만 3세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다(하나의학사역, 1994). 이것은 만 3세정도면 아동의 장애가 외적으로 들어 나기 시작하며 체계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기교육의 중요성은 발달의 가소성이 높은 조기에 적절한 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아동의 장애를 보상하고, 지연시키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조기 특수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원리에 입각하여 조기특수교육 대상아의 연령이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제공 방식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조기특수교육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실정이다(한국교육개발원, 1995). 이러한 관점에서 특수교육의 성패는 적기에 장애아동을 발굴하고, 진단하고, 교육과 치료를 하는 것에 의하여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士小節』에서도 아동의 발달은 조기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고 있다. 천리마는 갓난 망아지 때에 길들여야 하며, 훌륭한 재목은 어린 모종을 잘 북돋아야 한다는 내용(生馬之駒, 不能調習, 不可以爲良驥, 穉松之苗, 不能培壅, 不可以成美材, 故有子而不能教, 猶壅之也, 「童規, 教習」)은 특수교육에 있어서 조기교육의 중요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 2. 습관교육

이덕무의 전통가정교육은 습관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士小節』의 머리글에서 날마다 생활하고 행동하는 데 규범이 되는 법도를 잃지 않는 것은 본래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고전(古典)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생략했을 수 있다고 하였다(竊意日用常行, 不失規度, 以爲固有之事, 願不足以煩言, 『士小節』 序).

이덕무는 선비들이 점점 방자하여지는 것은 사소한 예절에 대한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책이 적고, 비록 『小學』에서 이를 강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실제적으로 『士小節』의 내용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소하고 다양한 일상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을 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아동의 교육에서 습관교육 또는 훈련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정인지체아동의 정의를 위하여 필요한 적응행동 영역 가운데에서 주로 자기관리기술(self-care), 또는 자조기능(self-help skills)과 관련이 있다. AAMR의 정인지체 정의에서 자기관리 기술의 내용으로 정의된, 화장실 사용, 먹기, 옷입기, 위생,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은 유아기에 획득하여야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일반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써 매우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士小節』의 의도와 마찬가지로 발달지체아동들에게는 이러한 사소한 기술의 습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약 이러한 기술들을 의도적으로 발달장애아동들이 학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심리적, 물리적 환경에서 적응하는 데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교부(1990)에 의하면 이러한 기초생활 기술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입증된 바로는 언어적 지시나 단서의 이해력 없이도 실연(實演)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기초생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언어훈련이나 인지 훈련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에서도 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초생활 훈련은 가정에서 일관성 있는 훈련에 의한 습관에 의한 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교부(1990)가 제시하고 있는 기초생활의 훈련 내용은 1) 식사 훈련 프로그램, 2) 착탈의 훈련 프로그램, 3) 몸단장 훈련 프로그램, 4) 용변 훈련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士小節』에서 취급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훈련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러한 내용들이 습관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음을 강조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士小節』 「童規」에서 한 번을 생각하는 데도 법칙이 있어야 하고, 한 번을 행동하는 데도 격식이 있어야 한다(一念慮威有則, 一動作威有式)는 의미는 바로 습관형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생활중심 교육

『士小節』의 전체 내용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관련한 처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상생활과 관련한 내용들로는(손직수, 1994) 개인생활 영역에서는 음식생활, 의복생활, 위생생활, 안전, 인사법<sup>4)</sup> 등에 대한 것들과, 가족생활 영역으로서는 부모관계, 형제관계 및 친인척 관계, 그리고 사회생활영역에서는 교우관계(交友關係)를 포함하여 사제관계(師弟關係), 장유관계(長幼關係) 타인의 방문시, 병문안, 조문시, 그리고 다양한 행사의 참여 등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日常)에서 접할 수 있는 이상과 같은 다양한 생활을 세세하게 분류하고 이에 따라 하나 하나 설명을 시도한 것은 일상을 과제분석의 대상으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특수교육과 유사하며, 생활·기능중심의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의 내용은 현재의 실제적인 사회 생활에 유용하고 미래 사회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은 단순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활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것으로 구성된다(권주석, 1997). 이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적 양식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생태학적 접근으로써 구성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이유훈, 1999).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동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바람직한 습관의 형성을 강조한 『士小節』은 내용면에서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교육목표(교육부, 1998)와 일치하며, 장애아동의 교육의 장(field)을 단순히 학교라는 제한된 곳으로 국한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까지 넓히고자 하는 현대적 특수교육 방법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 4. 부모교육

이덕무는 「婦儀」에서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죄(故教之不預, 父母之罪也, 「婦儀」)라고 하여 부모의 아동 교육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 「婦儀」편에서

이러한 내용을 기술한 것은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동교육의 책임을 부모라고 표현하여 책임의 소재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책임을 등한시하였을 경우를 죄(罪)라고 표현함으로써, 교육은 개인의 양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의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도 아동의 교육과 관련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결국 제도권의 교육이전에 가정에서의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교육의 책임 소재가 부모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처음 나서부터 7, 8세까지 아동의 일상적인 습관과 관련한 교육내용인 나가고, 들어오고, 걸어다니고, 말하고, 웃고, 행동하고, 옷 입고, 음식 먹고, 조절하고, 화목을 알맞게 삼가고, 덕성을 기르는 일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男子自初生至于七八歲, 出入行涉, 言笑起居, 衣服飲食, 節慎雍和, 培養德性, 亦資母訓, 然則爲母之職, 不亦重且大乎, 「婦儀, 教育」) Piaget의 발달단계에 따르는 전조작기(preoperational period)까지의 아동교육은 주로 어머니에 의하여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부모의 아동교육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아동의 심리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젓 먹는 아이가 아무 것도 모르고 울면 성급한 부인은 그치게 할 방법을 생각할 줄 모르고 도리어 혀를 차며 중얼거리고 꾸짖기를 마치 지각이 있는 아이가 일부러 우는 것처럼 여긴다(乳孩無知, 啼泣嗷嗷, 躁性之婦, 不知思所以止之之術, 反乃喃喃然罵, 有若眞有之, 以故爲啼泣者然, 何其窒也, 「婦儀, 教育」)는 설명은 부모가 아동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영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너무 엄격하게 하면 성질이 급한 아이는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너무 사랑하면 약은 자식은 방자하게 된다(太嚴卽悍子離, 太愛卽黠肆, 「士典, 御下」)고 한 것은 아동의 심리적·기질적 특성을 부모가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모의 역할과 관련하여 훈계의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고쳐야할 잘못에 대하여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아동이 먹을 것을 두 손에 들고도 모자라게 생각하고 떼를 쓰고, 꾸짖어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들고 있는 것을 다 빼앗고, 그래서 울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小兒兩手執物, 猶恐不及, 雖呵不從, 當盡奪所執, 啼哭欲死, 勿與之可也, 「婦儀, 教育」). 아이에게서 물건을 빼앗는 방법은 벌의 일종인 반응대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체벌의 단호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체벌의 효과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빈도를 줄이고자 하는데 있고, 주로 부정적인 입장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통교육의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는 분명한 잘못에서 단호한 체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체벌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체벌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강화하여 그 행위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벌에는 분명한 부모의 의지와 결단을 필요로 한다.

비록 체벌을 하더라도 감정적이거나 논리에 맞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어린아이가 잘못을 하였을 때는 그 경중을 따라서 돈독히 경계하거나 엄격히 책망할 일이지, 큰 소리를 지르거나 사나운 낫빛을 나타내거나 번거로운 말로 되풀이 야단을 치거나, 조리에 맞지 않게 마구 들볶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부모의 은혜와 위엄을 없어지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정과 의리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卑乳有過, 隨其輕重, 敦戒而嚴責之, 不可疾聲厲色, 煩言複語, 顛倒錯亂, 不惟恩威俱失, 亦恐精義有傷, 「士典, 御下」). 이것은 체벌의 결과로 부모와 자녀간의 인정이 갈라서지 않도록 하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체벌을 함에 있어서 감정에 휩싸여 아동에게 감정적인 폭언을 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금하고

있다. 노여움으로 인하여 남을 책망할 때는 당장 나가라, 쫓아버린다 등의 정(情)을 끊는 말을 해서는 안되며, 그 사람의 눈·입·머리·뺨·걸음걸이·말소리와 같이 특정 신체의 결점을 지적하거나, 도둑·귀신·야만·독사·여우·승냥이·개·돼지 등과 같은 짐승에 비유하거나, 옛날의 나쁜 사람에 비유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妻子, 雖有不如意, 不可疾聲詬罵, 如婢僕, 而輒出逐棄決絕之語, 恩既不孚, 而威亦不敷....., 凡因怒責人, 不可指摘其眼口·頭面·行步·聲音, 譬擬以盜賊·卑鬼魅·蠻夷·虺蛇·狐豺·犬豬·可惡可賤之物, 及古之惡人, 「土典, 御下」). 또한 이러한 일들은 일을 할 때마다 하나 하나 차례로 타이르고 경계할 것이지, 절대로 지나간 뒤에 성내지 말고(子弟有過, 循循敕戒, 切勿過時恚怒, 「土典, 御下」) 가르쳐야 할 목록을 정하여 놓고 아동의 잘못과 관련하여 심한 것은 한 번을 범해도 벌을 주고, 가벼운 것은 세 번을 범하면 벌을 주라(栗谷先生, 敎小兒 有十七條, 重則一犯論罰, 輕卽三犯論罰, 「童規, 敎習」) 고 한 것은, 내용면에서나 방법면에서 체계적이며,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현대적 행동수정의 원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체벌이 하나의 교훈(敎訓)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현대적 교수학습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동수정을 위한 체벌의 원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조용태, 김미실 역, 1997).

## 5. 체계적 교수학습

『士小節』 「童規, 敎習」 편에서는 교수학습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其栽培涵養之方, 則宜誘之歌詩, 以發志意, 導之習禮, 以肅威儀, 諷之讀書, 以開知覺), 교수방법에 있어서 아동의 수에 따라서 분반학습을 하고, 관찰학습(分爲三班, 每日輪一班歌詩, 其餘皆就席, 斂容肅廳)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禮記』를 인용하여 남자는 비로소 여덟 살에 사양하는 도리를 가르친다(男子八年, 始敎之讓, 「童規, 敎習」)고 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 연령에 따라 학습의 목표를 달리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능력을 고려하여 200자를 배울 수 있는 아동에게 100자만을 가르쳐서 아동의 정신적인 역량과 여유를 가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나, 하루를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킬 것을 주장하는 것들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백이 약한 아이에게 엄중하게 하면 아이가 겁을 먹게 되며, 기운이 왕성한 아이에게 엄격하면 아동이 발광하고 울분하고, 의지가 웅졸한 아이에게 너그러우면 게을러지고 산만하여지며, 성질이 강한 아이는 횡포하고 제멋대로 놀아난다고 하는 것들은 아동의 심리를 파악하여 아동에 따라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凡授書, 不在徒多. 但貴精熟, 量基資稟, 能二百字者, 只可授以一百字, 常使精神力量有餘, 則無厭苦之患, 而有自得之美, 「童規, 敎習」).

아동에게 글을 가르쳐줄 때 비록 아주 둔하고 용렬하더라도 모름지기 충분히 참고 동정하라고 하는 것은(授小兒書, 雖十分鈍庸, 須十分耐恕, 「土典, 敎習」) 아동의 장애특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방법의 적용과, 새로운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특수교육에서 더욱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발달지체 아동을 위하여 생활중심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특수교육의 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통 아동 교육 사상가인 이덕무는 그의 저서 『士小節』을 통하여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중심으로 아동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는 가정에서 아동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지를 「童規」편에서 동지, 교습, 경장, 사물의 네 부분으로 나누고, 124개의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덕무의 시도는 현대 특수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과제분석(task analysis)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동지(動止)에서는 주로 현대 특수교육에서 의미하는 자기관리(self-care)와 관련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가 지적하는 문제행동들은 장애아동에게서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외현적인 행동들(김은경, 1999)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덕무는 이러한 문제행동을 가정에서 일찍부터 관찰함으로써 아동들이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습(敎習)은 주로 교수 학습에 대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론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방법은 아동의 특성에 맞는 개별지도의 원리와, 아동의 정서를 고려한 학습방법 등이다. 이것은 학습자 중심을 요구하는 현대 특수교육의 방법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경장(敬長)은 주로 어른을 공경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스승에 대한 예의, 어른에 대한 예의, 손님에 대한 예의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내용들은 현대 특수교육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事物)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실천해야 하는 기본적인 활동들로 기술되어 있다. 청결과 정돈,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것들은 발달지체 아동의 교육에서 강조하는 위생과 안전 등에 대한 것으로서 현대 특수교육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이상의 영역을 통한 『士小節』은 교육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기교육을, 내용면에서는 일상생활을 강조한 생활중심교육을, 실천과 관련해서는 반복된 경험을 통한 습관교육을, 그리고 아동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 소재와 역할의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부모교육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 결론

미국은 특수교육의 효과를 학령기를 끝마친 이들이 사회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 많은 수의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끝마친 이후에 적절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었다(Blackorby & Wagner, 1996).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전환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등학교 특수교육과정에서 이를 준비시키고자 했던 시도들이 점차로 전 학령기를 통하여 이를 준비시킬 것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Clark, Field, Patton, Brolin, & Sitlington, 1994).

이러한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생활중심의 교육과 관련이 있다. 김진호(2001)는 전환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전환교육의 근본적인 요소로서 기능적인 생활중심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학교에서만 아니라 이미 가정에서 충분히 반복적으로 학습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특수교육의 결과를 위해서는 학교와 직장의 가교(bridge)역할(Will, 1984) 이전에, 가정에서 학교생활을 위한 준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에 공적인 관심과 지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사회에서 학교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상과 같이 전환교육이 등장하게 된 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역부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 모든 문제를 맡기기 이전에 학교와 가정과 연계하여 아동의 생활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달지체 아동교육의 법적인 책임은 차치하고라도, 이들이 가장 먼저 교육을 받게 되는 가정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가정에서의 발달지체 아동의 부모 역할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덕무의 『士小節』은 가정교육의 중요성, 생활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사로서의 부모의 역할 등에 관하여 현대 특수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후주

- 1) 德懋亦嘗謹讀，而持循之，然生于六七百年之下，處乎遐僻之鄉，古今迭遷，風俗不齊，習氣彌渝，反諸身，而驗諸心，其於小節，不能踐之者，十之七八，有所自得而能行者，亦幾十之二三，期所能行者少，則爲善甚難，期所不能者多，則不幾於爲惡之甚易乎
- 1) 실학과 관련한 사상은 이덕무의 군자관에 의할 때 명백해 진다. 이덕무는 군자가 생활해 가는 계교는 실정에 어둡거나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君子生計，不可迂濶，『士小節』 「士典，事物」)
- 1) 사단(四端)은 惻隱之心, 羞惡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을 의미하며, 구용(九容)은 율곡의 『擊蒙要訣』 「持身章」의 내용으로 발은 무겁게(足重), 손은 공손하게(手恭), 눈은 바르게(目端), 입은 신중하게(口止), 소리는 고요하게(聲靜), 머리는 똑바르게(頭直), 숨소리는 고르게(氣嚴), 설 때는 의젓하게(立德), 얼굴빛은 단정하게(色莊)를 의미한다. 오품(五品)은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을 뜻한다.
- 1) 凡與人言 先問寒暄，次問其父母安否，次問科程，次問生計，又有隨其人，次第可問之事，.....闕而不一問焉，非驕亢，則不近人情者也(『士小節』 「士典，交接」), 무릇 남과 말할 때는 먼저 계절 인사를 하고, 다음에 부모의 안부를 묻고, 다음에 하는 일을 묻고, 다음에 생활 형편을 묻고, 또 그 사람에 따라서 차례 차례로 물을 만한 일을 묻는 것이 옳다....., 이러한 것을 묻지 않는 것은 교만함이 아니더라도 곧 인정이 없는 행동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 교육부 (1998). **특수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 권주석 (1997). 정신지체아 교육과정 구성 원리 탐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경 (1999). 자폐성 장애의 증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호 (2001). 전환교육의 이론과 적용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5(4), 73-98.
- 명정옥 (1996). 부모교육. **정신지체아동 교육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특수교육.
- 문교부 (1990). **기초생활훈련의 이론과 실제(1)**. 문교부.
- 박상희 (1999).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조선시대 훈육서를 바탕으로-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손직수 (1994). 사소절에 나타난 전통 가정교육,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신현기 (1995). 정신지체아동의 대인문제 해결 특성.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경식 (1992). 예기 「내척」 편에 나타난 중국 고대 유아교육의 전통. **교육사상연구**, 8(2). 한국교육사상연구회.
- 오정화 (1996) 정신지체 특수학교 초등부 수업과정 평가.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재연 (2003). **특수교육과 교과교육**. 교육과학사.
- 이유훈 (1999). 학습자 중심의 학교교육과정 구성모형.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용태 · 김미실 공역 (1997). **포테이지 조기교육프로그램**. 도서출판 특수교육.
- 하나의학사 (1994).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4판.
- 한국교육개발원 (1995). **조기특수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기언 (1973). **한국사상과 교육**. 일조각.
- Blackorby, J. & Wagner, M. (1996). Longitudinal postschool outcomes of youth with disabilities: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transition study. *Exceptional Children*, 62, 399-413.
- Clark, G. M., Field, S., Patton, J. R., Brolin, D. E., & Sitlington, P. L. (1994). Life skills instruction: A necessary component for all students with disabilities. A position statement of the Division on Career Development and Transition. *Car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17, 125-134.
- Greenspan, S. I. (2000). *Building healthy minds*. MA: Perseus Books.
- Patton, J. R. (1997). Curricular implications of transition. *Remedial & Special Education*, 18(5), 294-306.
- Will, M. (1984). *OSERS programming for the transition of youth with disabilities: Bridges from school to working life*. Washington, DC: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논문접수 2004년 2월 23일/ 1차 심사 2004년 3월 26일/ 2차 심사 2004년 5월 9일

유재연: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특수교육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후과정중이며, 주요저서로는 「아이들은 손톱처럼 자란다」가 있다.

e-mail: kinguria@hanmail.net



## Abstract

### Implications of Traditional Korean Children'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Yoo, Jae Yeon(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Life-centered education programs which link together home, school, and different communities are important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However, it is not straightforward to teach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in life-centered programs at school, because most school programs are filled with academic subjects. Even though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have a opportunity to learn life-centered skills, it is not sufficient to reach their IEP goals at school. Therefore, it needs to establish the bridge between school and home for teach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by life-centered education programs. From this view point, strengthening home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 delays is as important as teaching them at school. However, finding a good model to teach children at home is difficult. Modern special education ideology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education. Thus even though Sasojol written by Dukmoo Lee did not explain about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it is possible to adapt his concept as a special education method. Lee has excellent suggestions for how to teach, how to construct the curriculum, and how to help the parents at home. Adapting Sasojol's approach as a home teaching method in contemporary society is very useful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 delays. In addition further implication of this approach can be signified when applied in interdisciplinary setting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key words: Korea traditional children education, Developmental delay, Sosojol